

한국인의 법의식: 법의식조사의 변화와 발전



✉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법제조사평가팀 연구위원
✉ ebearth@klri.re.kr

I. 연구 배경 및 목적

근대화 이후, 한국인의 근대적 의식과 법제도적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이러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국가작용의 기능성에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초기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초기 법의식조사의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에 의한 군부독재기가 끝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의식,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성장하면서, 과거의 법의식에 대한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1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은 5차에 걸친 국민법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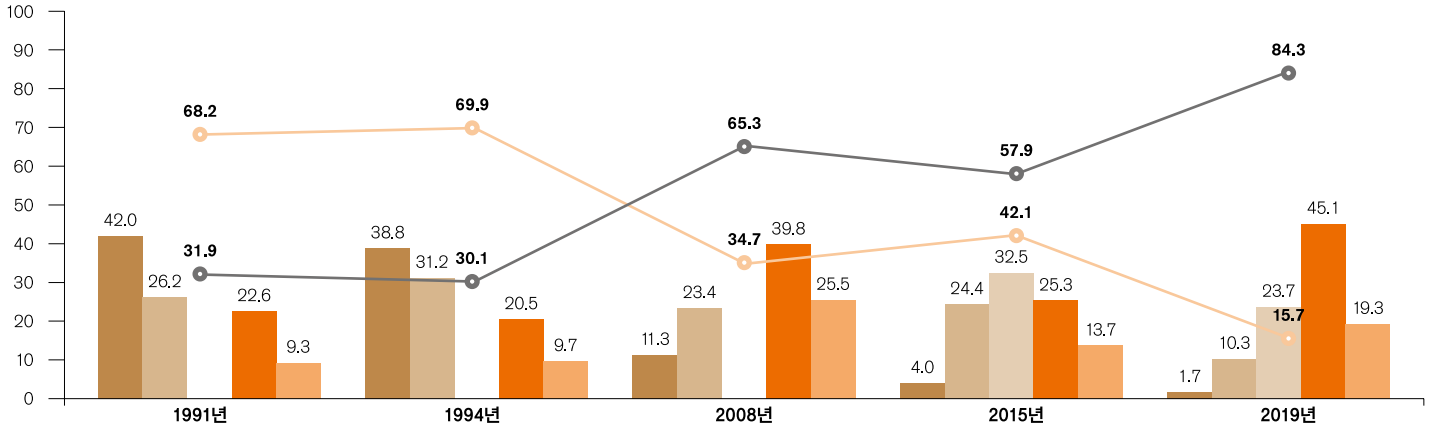
본 연구는 1991년, 1994년, 2008년, 2015년, 2019년, 5차에 걸친 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법의식조사 조사 결과에 대한 30년간의 변화과정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법의식의 특성과 지난 30년간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의식의 변화를 분석·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각 조사들의 조사 설문과 응답 문항이 동일하지 않아 이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설문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 취지의 설문과 동일 취지 응답으로 단순화하여 각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1) 30년간 5회에 걸쳐 실시된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조사의 조사방식은, 표본은 전국 성인 남녀 약 1,200~3,500명 미만 규모로 실시되었고, 개별가구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되었음.

법 집행의 공정성 인식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긍정(공평) ○ 부정(불공평)



텍스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1990년부터 2020년간 언론에 나타난 법의식 관련 기사 2,364건을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법의식의 변화상을 분석 제시하였다.¹⁾

II. 주요 분석 내용

‘법의식’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법인식’, ‘법감정’, ‘법문화’ 등이 있는데,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는 “법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전체적인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법생활, 국회·행정기관·법원·검찰·경찰 등에 대한 의견, 현행법령에 대한 견해에 대한 주제로 구성된 후, 이후 조사에서도 기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조사시기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어 1991년, 1994년, 2008년, 2015년, 2019년에 실시되었던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법의식조사 5회의 설문조사 검토 결과 4회 이상 공통된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설문문항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1. 법에 대한 인식

법률 용어/문장 이해도에 관한 조사결과로 볼 때, 90년대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80%에 가깝거나 약간 상회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거의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법령 용어에 대한 이해도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다

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2008년, 97.7%)

2. 법에 대한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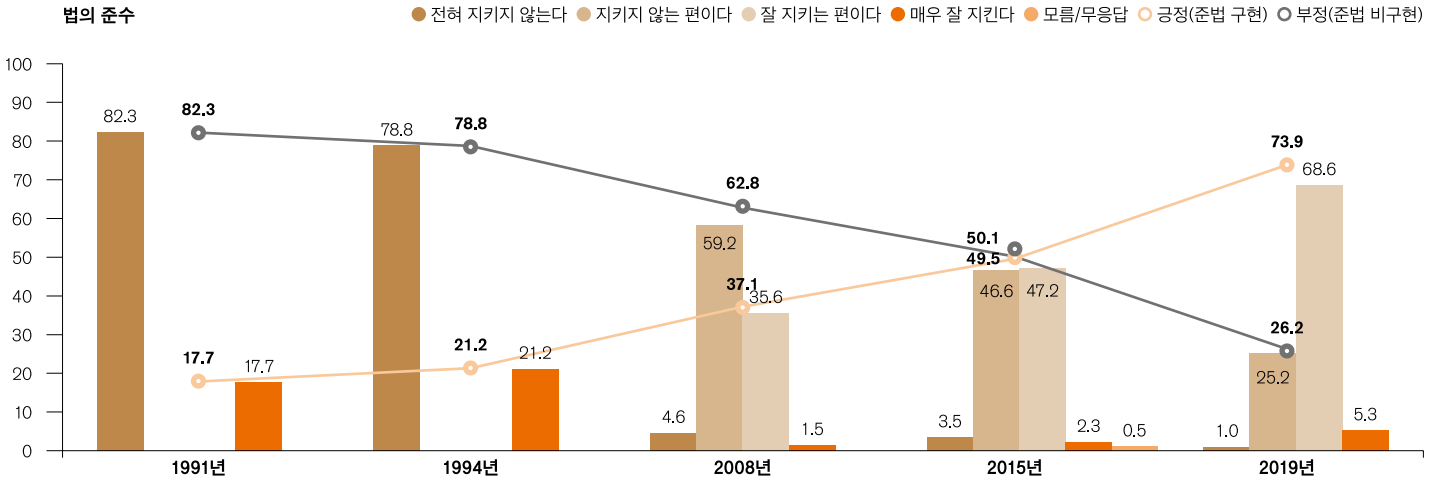
법 집행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조사결과로 볼 때,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더 높고 그 정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2019년, 84.3%), 법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 관하여도, 부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법의 준수

법의 준수에 관한 조사결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준범 여부에 대한 인식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주목할 정도로 상향되어 왔으며,(1991년, 17.7%에서, 2019년 73.9%) 법의 준수 장애 원인에 대하여는 조사마다 답변항목이 다르나,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1991년, 33.6%, 1994년, 32.9%),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2008년, 34.3%, 2015년, 42.5%) 응답이 높게 나왔다.

악법에 대한 준수(잘못 만들어진, 부당한)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로 볼 때, 대체로 준수해야 한다는 긍정의견이 좀더 우세하지만, ‘적극적 방법의 시정요구’의 선택이 주어질 경우, 해당 응답이 가장 높았다.(1991년, 49.6%, 1994년, 49.9%)

법치주의 구현에 관하여는, 동일한 조사에서 준범(2019년, 73.9%)보다 긍정의견이 낮게 나오므로써(2019년, 61%), 양자의 구별을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법치주의가 구현되지 않는 이유로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2019년, 47.6%)



4. 시대·세대와 법의식의 변화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적 성향의 영향이나 세대의 영향보다는 조사 당시 시대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10년대 40대를 기준으로, 90년대(20대), 2000년대(30대)의 의식의 변화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시대와 세대(동일 세대, 연령층)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법에 대한 용어/문장 이해도는 90년대 20대(현 40대)의 경우 평균보다 낮았으나, 40대가 된 2010년대에도 유사한 정도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법 정보 취득 경로가, 2010년대 40대는, 그 이전 세대의 40대에 비해 온라인사이트를 통한 정보취득 비율이 높았고, 법 교육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동일 세대 영향)

여성에 대한 차별공감은 과거 30년간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주제 중 하나로서, 2008년 기준으로는 30대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의식의 차이가 있었고, (차별이 있다는 견해, 2008년, 20대: 54.1%, 30대: 54.7%, 40대: 49.6%, 50대: 41.5%) 이러한 차이는 2015년에도 유지되다가, 2019년에는 50대 이전과 그 이후 세대에 있어서 의식의 차이가 상당히 나타났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5. 성별과 법의식의 변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영향에 대하여, 여성들의 경우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았으나,

90년대 이후 차별이 있다는 의견은 점점 줄어들었으나, 2019년에는 특히, 남성의 공감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2015년, 2019년, 남자: 33.2%에서 63.5%로 30.3% 증가, 여자: 47.7%에서 72.7%로 25% 증가)

6. 언론 빅데이터를 통한 정부기간별 법의식

90년대의 법의식 관련 주제들은 주로 특정 사건 범죄수사나 재판 관련 이슈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헌법적 이슈들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간통죄(90년대부터 시작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주요 담론으로 부상됨),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형이슈가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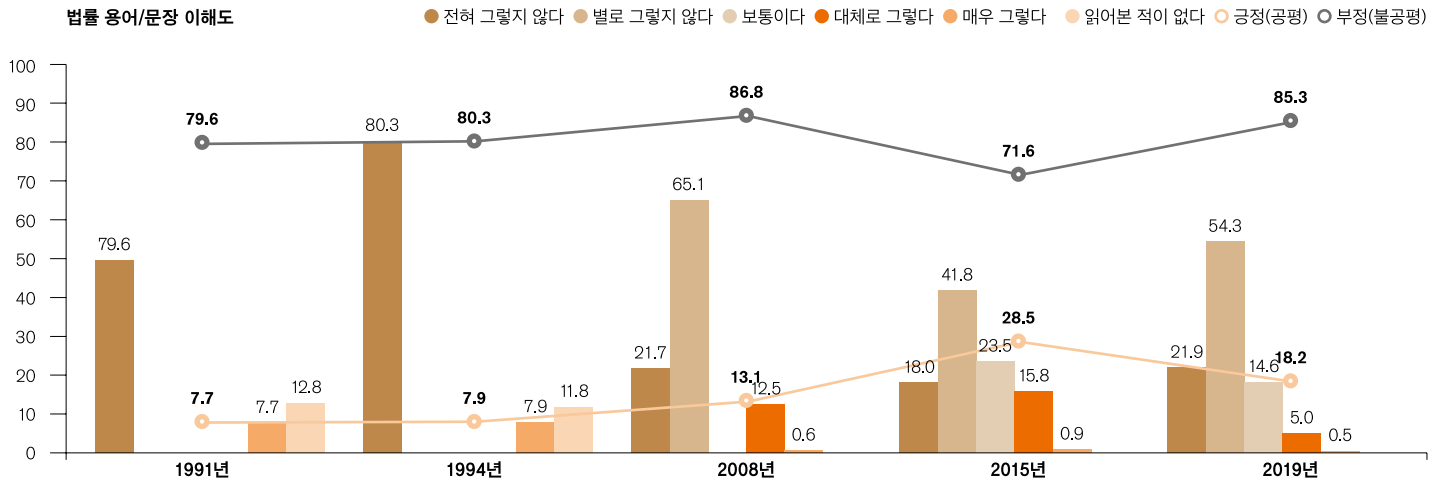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법의식조사와 관련하여 핵심 이슈로 다루어진 주제로는 사형의 집행 및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논의로 나타나며(2008년,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에서 사형과 관련된 설문을 다룸),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와 관련성이 가장 큰 범으로는 헌법으로 나타났다.

III. 30년간의 변화로 본 시사점

1. 한국인의 전체적 법의식 특성과 변화

법에 대한 의식의 차원에서 볼 때, 여전히 부정적인 의

법률 용어/문장 이해도



견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볼 때, 전체적으로 합법성과 정당성 모든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볼 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이 법의 정당성 향상의 자양분이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합법성에 대한 존중도 증가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왔다.

악법, 부당한 법에 대한 의식에 대하여도 준법 의식이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5년 대비 2019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며, 과거 90년대의 경우, 준수 의지보다는 개선의지가 강하게 표출되는 것을 볼 때, 법의 준수는 법의 정당성의 뒷받침을 받아야 유지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인들의 준법 정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고, 남녀 성차별에 대한 공감의식도 높게 나타나 특히, 직장에서의 준법경영과 성차별적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요망된다.

부정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보전달방식, 정보유통량의 증가 및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 관련 정보 습득방식이나 수준과 관련된 부분이다.

한국인의 민주의식과 참여의지는 강화되는 데 반하여, 젊은 층일수록 법 관련 정보습득 정도나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어, 정보전달의 양과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법제 형식이나 입법자와 수법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혁신적 대응방안 모색이 요청된다.

2. 법의식 조사를 통한 개선 시사점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더불어 법 집행의 불공평성에 대한 공감감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법치주의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을 꼽고 있고, 법의식 관련 기사에서도 정치지도자들의 법의식이 주요 담론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어, 정치지도자들의 준법과 윤리를 확보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인의 법의식: 법의식조사의 변화와 발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